

친환경 광역소각장 건립 '첫발'

전주시, 전주·김제·완주·임실 등 4개 지역 대상 2개월간 신규 입지 공모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친환경 광역소각장 건립'의 첫발을 댄다.

시는 전주·김제·완주·임실 등 4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소각장을 건립해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신설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군,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으로, 해당 4개 시·군이 입지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공고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폐기물처리 대상 지역, 예상 규모 등)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 후보지 조건 및 응모 자격 △주

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약 2개월 간의 입지 공모를 거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이 들어설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광역소각장을 신규 건립기로 한 것은 상림동 현 전주권 광역소각장(2006년 9월) 만료를 앞두고 기술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광역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초 현 소각장(2800㎿)이 반영됐지만, 폐기물 성상 변화에 따라 폐기물 발열량(현재 3505㎿)이 지속 증가하면서 소각로 내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 유지를 위해 소각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전문

가와 시민단체 등 16명이 참여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선정 기준과 주민지원 등 입지선정 계획 공고 내용, 공고 기간,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최현창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친환경 소각장 신규 건립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향후 20년 이상 소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 사업"이라며 "향후 관련 법에 근거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치고,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인 만큼 마을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841)로 문의하면 된다.

/조아록 기자

전북경찰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은 2023년 전북치안의 대계(大計)를 세우는 전북경찰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경찰청 소문방에서 8일 개최했다.

보고회는 강 청장과 경찰청 실무과·계장 등이 모여 2022년 치안활동 및 급년 지역사회 현안과 치안여건을 분석했다. 또 기능별 주요추진 업무를 공유하는 등 금년도 치안 방향과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해 '성리(省

理) 성사(省事) 성심(省心)의 살림의 치안'을 전북치안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는 통합방위대세 확립 최우수관서 선정 됐으며 치안민족도 전국 1위, 교통사망자 줄이기 우수청 선정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통합방위대세 최우수관서 선정은 '정부기관, 경찰, 군(軍) 등 관련부처의 대응상황을 정부가 평가해 선정받

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덕진경찰서는 '살림의 치안' 기초를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건사고, 다중운집 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올해 개최될 세계 잼버리 대회,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강형수 전북경찰청장은 "5천여 전북경찰은 도민안전 최우선으로 공감과 경청의 살림의 자세를 내재화하며,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통체'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빙기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가온이 상승하는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결빙된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시설물 붕괴와 균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옹벽과 급경사지, 사면, 공원, 문화재, 건설 현장 등 관내 해빙기 취약 시설물 21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해빙기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는 1차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예비 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을 취합한 후, 이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

기·소방 등 관련 분야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조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정밀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 중 동 주민센터와 구·시청사, 도서관 등 50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더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도 점검키로 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 위한 강좌 진행

'알기 쉬운 치매의 이해' 주제 김고운 전북대 신경과 교수 강연

민선 8기 출범 이후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한 전주시가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조직 내 치매 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는 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

'알기 쉬운 치매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김고운 전

북대학교 신경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치매의 정의 △치매조기검진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치매환자 대응법 △치매환자를 돌볼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노인 업무 담당자들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통합돌봄 서포터즈, 전주시사회 방방간호 인력,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치매 노인의 특성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치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종사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전주시보건소는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세계 3대 관광박람회 참가 '전주 매력' 홍보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서 '전주관광 홍보관' 운영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세계 3대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유럽 여행자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에 참가해 전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유럽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독일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ITB)는 행사를 찾는 관광객만 16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World Travel Market)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손꼽히는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행사를 찾은 유럽과 미주 대륙의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핵심 담당자와 개발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이자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전주 한지를 이용해 만든 수첩,



전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에 참가해 전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유럽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 관광 표를 활용한 굿즈 등 전주를 기념할수 있는 홍보물품을 배부해 방문객의 흥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참가 인바운드 여행업체 및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주를 비롯한 인근 시·군 연계한 여행상품 상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전주 일정이 포함된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 국제관광박람

회에도 참가, 한국관광홍보관에서 우수한 한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여행 전주를 알리기도 했다.

정명희 시 관광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전주를 유럽 관광시장에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참가기관 등과 전주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관광이 전주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덕진경찰서, 청소년 비행 예방 위한 토크카페 현장점검

최근 밀집형 토크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덕진구청과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관내 14개 토크카페에 대해 점검을 지난 7일 실시했다.

현행 여가부 고시에서 밀폐된 공간·간막이 등으로 구획한 경우, 친구류 비치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덕진경찰은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현장점검을 통해 업

주 상대로 청소년의 이상훈속, 흡연 등 비행행위를 방호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했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의 이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